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력, 성취동기와 직업 양성평등의식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History, Achievement Motivation, and
Gender Egalitarianism in Job on University Students' Negative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성 미 영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권 희 경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장 영 은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Miyoung S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ee-Kyung Kwon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Young Eun Ch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maternal employment history, achievement motivation and gender egalitarianism in job on university students' negative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A total of 338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Kyungki, and Kyungnam area, provided information for the study. Analyses results showed that male students had higher level of negative beliefs about the

Corresponding Author : Hee-Kyung Kwo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9 Sarim-dong, Changwon, Gyeongnam, 641-773, Korea Tel: +82-55-213-3543 Fax: +82-55-213-3540
E-mail: hkkwon@changwon.ac.kr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and achievement motivation and lower level of gender egalitarianism in job than female students did. Mothers' history of employment during the student's middle and high school period and higher job egalitarianism predicted lower negative beliefs about maternal employment. As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compared, male students with history of mothers' employment, lower level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higher level of gender egalitarianism showed low level of negative beliefs about maternal employment. For female students, mothers' employment significantly predicted their beliefs about negativ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주제어(Key Words) :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negative beliefs about maternal employment),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 직업 양성평등의식(gender egalitarianism in job)

I. 서론

비록 완만하기는 하나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혼 여성의 취업률 또한 높아졌다. 기혼 취업 여성의 증가는 곧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모 가정의 증가를 뜻하는데,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나 일반적으로 합의된 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취업률의 증가가 자연스럽게 유자녀 여성의 취업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있는지 역시 알려지고 있지 않다. 여성의 지위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한다고 해도, 취업모를 둔 자녀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연구자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해왔다.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상당히 중요한 환경 요인이므로,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모성 취업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은 곧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가족을 형성할 사람들이므로, 대학생들이 현재 어머니의 취업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앞으로 여성, 특히 출산 후 자녀 양육기의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대하여 어떤 양상을 보일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국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비해 유자녀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그다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음(Davis, Smith, & Marsden, 2001)을 볼 때, 사회적 현상과 가치관 변화의 차이가 자녀양육을 비롯한 가족생활에 가지고 올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 취업에 대한 태도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달적 관점에서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 후반과 성인기 초반에 걸쳐 있는 시기로서, 사회 진출에 대한 준비와 함께,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관념을 완성해 간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갖는 성취동기와 직업 양성평등의식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신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 시기의 성취동기 수준이 높을 경우 직업준비나 직업선택에 있어서 보다 적

극적이며 진취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향은 결혼 이후 본인이나 배우자의 취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생 시기는 졸업 후 사회로의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직업관련 양성평등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인식 수준 및 그와 관련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들이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된 경험을 현재의 신념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1980년대 미국의 학자들이 어머니 취업으로 인해 보육시설에서 일할 시간을 보내는 영유아들이 발달적인 문제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화되었다(e.g., Belsky & Rovine, 1988; Clarke-Stewart, 1989). 실제로 어머니의 취업 자체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들은 하나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는 데에는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가 어머니 없이 보내는 시간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어머니의 취업시간, 취업 시점, 취업 이유, 어머니의 성격과 가치관, 가족지지, 가족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질과 보육의 양, 부모-자녀 관계의 질 등이 어머니 취업의 영향력을 매개 또는 조정하기 때문이다(박성연, 임미리, 2002; 이희정, 조윤주, 2009; 장영은, 2006; Belsky, 1999; Chang, 2003; Hock, 1984; NICHD ECCRN, 2001). 따라서 일반인이 지각하는 어머니 취업이 가지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 또한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 가진 어머니 취업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은 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에서 1972년 전국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67.3%의 응답자가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좋지 않으며,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응답하였으나, 1998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40.9%로 감소하였다(Davis et al., 2001). 하지만 그 감소비율에 비추어 볼 때, 취업모와 그 자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정책과 보육지원 등의 제도적 변화에 비해서, 어머니 취업이 가족과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Greenberger, Goldberg, Crawford와 Granger(1988)는 '어머니 취업이 자녀에게 가지고 오는 결과에 대한 신념(Beliefs about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BACMEC)' 척도를 개발하여 어머니 취업으로 인해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을 설문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주로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믿을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취업보다는 양육을 선택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취업한 경우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인이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성취동기가 강한 어머니의 경우 취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각이 낮으며, 오히려 취업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Chang, 2003). 따라서 이러한 취업관련 신념은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결혼을 하여 자신 또는 배우자의 취업으로 인해 경험하게 될 가족생활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 국내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손경화와 조보희(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여성과 남성의 가정에서의 역할, 여성의 직업관련 역할, 그리고 일반적인 성고정관념에서 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부모가 된 이후에 측정된 신념은 결혼생활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 취업 또는 비취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시간에 따라 변화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결혼 및 취업 이전의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의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취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런 신념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성취동기와 성역할에 관한 의식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이 가지고 있는 취업에 대한 신념 역시 이후 가족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 남자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 취업에 대

한 부정적 신념과 그 설명요인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 취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취업력을 비롯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취동기 및 직업 양성평등의식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성취동기는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사회적 유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높은 성취동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끈기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이운경, 도현심, 2005). 성취동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및 대학생의 학업성취, 직업결정, 부모자녀관계 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박영신, 김의철, 2003; 유계식, 이재창, 1997; 이운경, 도현심, 2005; 조지혜, 2007;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6; 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 1992). 예를 들어, 대학생의 성취동기는 진로태도성숙이나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서 성취동기가 높은 대학생은 진로에 대한 태도 역시 더 성숙하였으며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지혜, 2007). 또한 성취동기가 높은 대학생은 보다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였다(유계식, 이재창, 1997).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의 경우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성취압력, 부모에 대한 죄송함이 성취동기를 높이고 높아진 성취동기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탁수연 외, 2006). 어머니의 기대, 지적 활동에 대한 칭찬과 고취 등이 자녀의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었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 역시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었다(이운경, 도현심, 2005; Zimmerman et al., 1992). 그런데 대학생의 성취동기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는 부모자녀관계 변인 중 어머니의 기대와 같은 변인이 관련되었음을 보여주었으나,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자녀가 인식하는 바와의 관련성은 살펴볼 수 없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과 취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성취동기가 강할수록 취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각이 낮으므로(Chang, 2003) 이러한 경향성이 대학생 시기의 남학생과 여학생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의식은 여성과 남성이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믿음인 동시에, 성차별적인 행동을 승인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다(곽경숙, 한아름, 2007; 김양희, 정경아, 2000). 성역할의 차이가 아닌 평등성에 주목한 학자들(김양희, 정경아, 2000; Beere, King, & King, 1984; King & King, 1997)은 기존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이 중성적이거나 성인지적이라기 보다는 성차별주의

적인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성차별적인 관점을 배제한, 성인지적이고 성중립적인 관점에서의 양성평등의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양성평등의식은 대학생 및 성인의 성역할 고정관념(권희경, 2006), 성인지 태도와 행동(김원경, 2008; 이은희, 2005), 심리적 태도(이경순, 정성진, 2006; 홍기원, 2001)와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의 학교 생활 및 진로 효능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재순, 2007; 정영주, 2009). 한국형 양성평등의식 척도를 제안한 김양희와 정경아(2000)는 양성평등의식을 가족, 교육, 직업, 사회문화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직업 양성평등의식은 업무 능력 및 직장 환경, 성별 분리된 직업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노년층보다는 청장년층이,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더 양성평등한 태도를 보였다(김양희, 정경아, 2000). 이러한 결과는 직업 양성평등의식의 수준에 따라 어머니 취업에 대한 태도 역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에 따르면 유자녀 여성의 취업이 자녀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어머니들이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손경화, 조복희, 2009; Chang, 2003), 취업과 결혼을 앞둔 대학생들 사이에 이들 변인 간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자신의 성장과정의 경험이 현재 신념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

신이 취업모의 자녀로서 자라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역시 어머니 취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문제제기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성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 성취동기, 직업 양성평등의식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과 경남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09년 10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수도권 2개 대학교와 경남 지역 5개 대학교의 강의 시간을 통하여 설문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학생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34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4부를 제외한 338부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본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338)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남학생	102(30.2)	전공	인문사회계열	227(67.2)
	여학생	231(68.3)		이공계열	105(31.1)
학년	1학년	43(12.7)	지역	수도권	212(62.0)
	2학년	87(25.7)		경남	125(37.0)
	3학년	119(35.2)			
	4학년	85(25.1)			
연령	18-20세	123(36.4)	가족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6(10.7)
	20-22세	139(41.1)		200만원-300만원 미만	67(19.8)
	23세-25세	58(17.2)		300만원-400만원 미만	93(27.5)
	26세 이상	15(4.4)		400만원-500만원 미만	52(15.4)
				500만원-600만원 미만	37(10.9)
			600만원 이상	35(10.4)	
아버지 직업	판매서비스직	61(18.0)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144(42.6)
	노무직	53(15.7)		판매서비스직	62(18.3)
	사무직	54(16.0)		노무직	30(8.9)
	전문기술직	36(10.7)		사무직	28(8.3)
	관리직	67(19.8)		전문기술직	25(7.4)
	기타	55(16.3)		관리직	11(3.3)
			기타	30(8.9)	
아버지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6(10.6)	어머니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51(15.0)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2(45.0)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6(60.9)
	대학교 졸업 이하	110(32.5)		대학교 졸업 이하	66(19.5)
	대학원 이상	33(9.8)		대학원 이상	10(3.0)

주. 무응답은 제시하지 않음

연구에 정보를 제공한 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Greenberger 외(1988)가 개발한 ‘어머니 취업이 자녀에게 가지고 오는 결과에 대한 신념(Beliefs about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BACMEC)’ 중 어머니의 취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신념을 묻는 11개의 문항을 번안하여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취업모의 아이는 부모와의 애착관계형성에 문제가 있어 비행청소년이 되기 쉬울 것이다.” 등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자녀가 겪게 될 수 있는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형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취업으로 인해 자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념이 강함을 뜻한다.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77이었다.

2)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Spence와 Helmreich(1983) 등이 개발하고 권희경(1997)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는 욕구를 측정하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형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음을 뜻한다.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0이었다.

3) 직업 양성평등의식

본 연구에서 양성평등의식은 김양희와 정경아(2000)가

개발한 양성평등 척도 중 직업 영역의 양성평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여성과 남성의 능력에 대한 비유 신념, 직장에서의 업무와 승진 등에 대한 양성의 평등성에 대한 지지도를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형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뜻한다.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7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이원변량분석, 상관관계,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별 및 학년에 따른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 성취동기, 직업 양성평등의식

먼저, 성별 및 학년에 따른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 성취동기, 직업 양성평등의식의 양상을 살펴보고 있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성별 및 학년에 따른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 성취동기, 직업 양성평등의식 평균 및 표준편차 (n = 338)

구분	부정적 신념 M(SD)	성취동기 M(SD)	직업 양성 평등의식 M(SD)	
성별	남학생	36.9(5.2)	71.0(8.0)	72.0(10.1)
	여학생	34.4(6.0)	66.6(7.7)	86.8(7.1)
학년	저학년	35.9(5.9)	67.8(8.4)	83.4(10.8)
	고학년	34.7(5.8)	68.1(8.1)	81.7(10.4)
전체	35.2(5.9)	68.1(8.3)	82.5(10.6)	

<표 3>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 성취동기, 직업 양성평등의식 이원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	성별	470.38	1	470.38	14.16***
	학년	149.76	1	149.76	4.51*
	성별×학년	9.75	1	9.75	.29
	오차	10631.67	320	33.22	
성취동기	성별	1423.98	1	1423.98	22.30***
	학년	21.77	1	21.77	.34
	성별×학년	79.08	1	79.08	1.24
	오차	20880.50	327	63.86	
직업 양성평등의식	성별	13690.59	1	13690.59	204.89***
	학년	.06	1	.06	.00
	성별×학년	26.74	1	26.74	.40
	오차	21515.38	322	66.82	

* p < .05, *** p < .001

조사대상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35.2점($SD = 5.9$)으로 응답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11~55점 중 중간값인 3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대학생의 성취동기는 68.1점($SD = 8.3$)으로 응답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19~95점 중 중간값인 57점보다 11점 이상 높았다. 대학생의 직업 양성 평등의식은 82.5점($SD = 10.6$)으로 응답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20~100점 중 중간값인 60점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과 학년에 따라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 성취동기, 직업 양성평등의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F = 14.16, p < .001$), 성취동기($F = 22.30, p < .001$), 직업 양성평등의식($F = 204.89, p < .001$)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여학생($M = 34.4, SD = 6.0$)보다 남학생($M = 36.9, SD = 5.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동기는 여학생($M = 66.6, SD = 7.7$)보다 남학생($M = 71.0, SD = 8.0$)이, 그리고 직업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M = 72.0, SD = 10.1$)보다 여학생($M = 86.8, SD = 7.1$)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F = 4.51, p < .05$) 대학교 저학년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M = 35.9, SD = 5.9$)이 고학년생의 부정적 신념($M = 34.7, SD = 5.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학년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2.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초등학교 시기($r = -.17, p < .01$) 및 중고등학교 시기($r = -.18, p < .05$) 어머니 취업력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학년($r = -.22, p < .05$), 중고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r = -.25, p < .01$)과 부적인 관련을, 성취동기($r = .33, p < .01$)와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다. 즉, 대학생들이 보이는 어머니 취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은 학력, 어머니의 취업력, 직업 양성취동기 등과 관련이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

<표 4> 변수들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1. 학년 ^a	-	-.15*	-.03	.03	-.06	.05	-.07	-.09
2. 가족 소득	-.05	-	.06	.04	-.07	.09	-.07	-.11
3. 영유아기 어머니 취업력 ^b	.04	-.13	-	.36**	.17*	.11	.02	-.14
4. 초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 ^b	-.00	-.12	.72**	-	.44**	.09	-.09	-.17*
5. 중고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 ^b	.04	-.06	.49**	.74**	-	.09	-.06	-.18*
6. 성취동기	-.03	-.04	-.05	-.19	-.04	-	.18	-.09
7. 직업 양성평등의식	-.01	-.06	-.02	-.18	-.20	.21*	-	-.06
8.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	-.22*	-.16	-.05	-.19	-.25*	.33**	-.13	-

주. 대각선 위쪽은 여학생, 아래쪽은 남학생임.
^a (저학년 = 0, 고학년 = 1) ^b (비취업 = 0, 취업 = 1)
 * $p < .05$, ** $p < .01$

<표 5>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수	B (SE B)	β	VIF
성별 ^a	-1.03(.51)*	-.10	1.97
학년 ^b	-1.48(.69)**	-.12	1.03
가족 소득	-.48(.23)*	-.12	1.04
영유아기 어머니 취업력 ^c	-.30(.82)	-.02	1.32
초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 ^c	-.86(.86)	-.07	1.69
중고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 ^c	-2.10(.80)**	-.17	1.41
성취동기	.05(.04)	.07	1.11
직업 양성평등의식	-.10(.04)*	-.17	1.80
상수	47.67(4.10)		
R^2	.14		

^a (남성 = 0, 여성 = 1) ^b (저학년 = 0, 고학년 = 1) ^c (비취업 = 0, 취업 = 1)
 * $p < .05$, ** $p < .01$

어 있다.

조사대상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beta = -.10, p < .05$), 학년($\beta = -.12, p < .01$), 가족 소득($\beta = -.12, p < .05$), 어머니의 중고등학교 시기 취업력($\beta = -.17, p < .01$), 직업 양성평등의식($\beta = -.17, p < .05$)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성별이 여성이거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 소득이 높아질수록, 중고등학교 시기에 어머니가 취업했을 경우, 그리고 직업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상대적 관련이 가장 높은 변수는 중고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취업력이었다. 성별, 연령, 가족 소득, 어머니의 중고등학교 시기 취업력, 직업 양성평등의식으로 구성된 회귀식은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분산을 14% 설명하였다.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은 1.03에서 1.97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염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Myers, 2000).

3.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성별에 따라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 성취동기, 그리고 직업 양성평등의식이 유의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역할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알아보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누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관련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학년($\beta = -.20, p < .05$), 가족 소득($\beta = -.18, p < .10$), 중고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beta = -.35, p < .01$), 직업 양성평등의식($\beta = -.29, p < .01$)이 어머니의 취

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유의하게 부적으로 관련되었으며, 성취동기($\beta = .37, p < .001$)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유의하게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즉, 어머니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취업했을 때, 그리고 직업 양성평등의식이 높을 때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낮게 나타났으며, 본인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어머니 취업에 대해 더 부정적인 가치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 중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상대적 관련이 가장 높은 변수는 성취동기였다.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은 1.01에서 3.94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염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Myers, 2000).

한편, 여학생의 경우 학년, 가족 소득, 중고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취업력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유의하게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독립변수 중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상대적 관련이 가장 높은 변수는 중고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취업력이었다. 특히, 남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유의하게 설명했던 성취동기와 직업 양성평등의식은 여학생에게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가족 소득, 중고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취업력, 직업 양성평등의식이 남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31% 설명한 반면, 연령, 가족 소득, 중고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취업력은 여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8%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 관련변수들의 설명력에 있어서 여학생의 경우보다 남학생의 경우에 설명력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 취업력, 자신의 성취동기와 직업 양성평등의식이 어머니 취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을 더 많이 예측함을 보여주었다.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은 1.04에서 1.40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염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Myers, 2000).

<표 6>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수	남학생			여학생		
	B (SE B)	β	VIF	B (SE B)	β	VIF
학년 ^a	-2.32(1.03)*	-.21	1.01	-1.07(.55)†	-.10	1.04
가족 소득	-.58(.31)†	-.18	1.03	-.48(.26)†	-.10	1.05
영유아기 어머니 취업력 ^b	1.69(1.43)	.16	2.20	-1.04(1.01)	-.08	1.17
초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 ^b	.01(1.88)	.01	3.94	-.90(1.00)	-.08	1.40
중고등학교 시기 어머니 취업력 ^b	-3.58(1.45)**	-.35	2.38	-1.87(.98)*	-.15	1.26
성취동기	.23(.06)***	.37	1.15	-.03(.06)	-.04	1.07
직업 양성평등의식	-.16(.05)**	-.29	1.11	-.07(.06)	-.08	1.06
상수	39.52(5.79)			47.14(6.07)		
R^2		.31			.08	

^a (저학년 = 0, 고학년 = 1) ^b (비취업 = 0, 취업 =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338명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은 대학교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를 보여서 남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여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취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에서 남녀 대학생 간 유의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Greenberger 외(1988)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 시기의 경우 남학생이 어머니의 취업이 갖는 부정적 측면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결혼 후 맞벌이 가족을 구성할 경우 일과 자녀양육의 균형에 대한 태도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취동기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그리고 직업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동기(이재창, 유계식, 1996)와 양성평등의식(김양희, 정경아, 2000)의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학교 저학년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고학년학생의 부정적 신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할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취업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둘째, 대학생의 성별이 여성이거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 소득이 높아질수록, 중고등학교 시기에 어머니가 취업했을 경우, 그리고 직업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양성평등의식이 모취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와 부정적 신념 간의 정적인 관계를 밝힌 국내외 선행연구결과(손경화, 조복희, 2009; Greenberger et al., 1998)를 지지한다. 독립변수 중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상대적 관련이 가장 높은 변수는 중고등학교 시기 어머니의 취업력이었다.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예측하는 관련 변인들은 부정적 신념을 1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중고등학교 시기에 취업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직업 양성평등의식이 높을 때, 남학생

은 어머니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더 적게 하며 본인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어머니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연령, 가족 소득, 중고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취업력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유의하게 설명했던 성취동기와 직업 양성평등의식은 여학생의 부정적 신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모취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이 직업에 대한 성취욕구(Chang, 2003) 및 성역할태도(손경화, 조복희, 2009; Greenberger et al., 1998)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던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남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31% 설명한 반면, 여학생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8%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학생의 경우보다 남학생의 경우에 관련변수들의 설명력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의식구조 등이 어머니 취업이 가지고 오는 영향력과 더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힌 결과라 볼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가 기존의 여성, 주로 어머니만 대상으로 했던 어머니 취업관련 신념연구에서 벗어나 취업, 결혼 전 남성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남학생은 어머니 취업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취업에 대한 동기가 강할수록 어머니 취업에 대해 부정적 신념이 약했는데(Chang, 2003), 남성과 여성의 성취동기가 어머니 취업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념에 대해 반대 방향의 영향력을 가지는 이유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적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력 등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해야하는 문항들이 있었으며, 동일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횡단적 자료 수집을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통한 신념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특정 지역의 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셋째, 여학생과 남학생의 표본수에 차이가 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많이 표집된 상태에서 얻어진 결과이므로 이러한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인식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혔다. 또한 성별에 따른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관련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역할 모델, 경제적인 면에서의 기여 등 긍정적인 면 또한 함께 있으므로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권이 다른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 가치관과 개인적 경험에 따라 어머니 취업에 대해 다양한 신념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교문화적 접근 역시 유용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재순(2007). 중고생의 성별과 계열에 따른 양성평등 의식과 진로자아효능감.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경숙, 한아름(2007).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의 관련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269-1278.
- 권희경(1997). 개인특성 및 성장환경과 가족특성에 따른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성취동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희경(2006). 경남 지역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기초 조사. **창원대학교 생활과학 연구**, 10(1), 1-13.
- 김양희, 정경아(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3-44.
- 김원경(2008).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인지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임미리(2002).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57-68.
- 박영신, 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손경화, 조복희(2009). 취업신념 측정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2), 69-78.
- 유계식, 이재창(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259-288.
- 이경순, 정성진(2006). 성인의 양성평등의식, 생의 의미 및 우울간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15(1), 14-21.
- 이운경, 도현심(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3), 43-59.
- 이은희(2005).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과의 관련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5), 859-869.
- 이재창, 유계식(1996).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 진로결정유형간의 관련분석과 이들 변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13, 111-145.
- 이희정, 조윤주(2009).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97-229.
- 장영은(2006). 영유아 시기의 어머니 취업이 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9), 89-92.
- 정영주(2009).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양성평등의식 및 학교생활적응도 분석: 단성교육의 관점에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지혜(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2006).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6(1), 143-153.
- 홍기원(2001). 대학생들의 성차의식이 성과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137-162.
- Beere, C. A., King, D. W., & King, L. A.(1984). The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A measure of attitudes toward equality between the sexes. *Sex Roles*, 10, 563-576.
- Belsky, J.(1999). Quantity of nonmaternal care and boy's problem behavior/adjustment at ages 3 and 5: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Psychiatry*, 62, 1-20.
- Belsky, J., & Rovine, M.(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57-167.
- Chang, Y. E.(2003). *Mothers' Attitudes toward Maternal Employment, Maternal Well-Being, Maternal Sensitivity,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Outcomes When Mothers Engage in Different Amounts of*

- Employ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Clarke-Stewart, K. A.(1989). Infant day-care: Maligned or malignant? *American Psychology, 44*, 266-273.
- Davis, T. A., Smith, T. W., & Marsden, P. V.(2001). *General social survey cumulative file, 1972-2000*.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 Greenberger, E., Goldberg, W. A., Crawford, T. J., & Granger, J.(1988).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35-59.
- Hock, E.(1984). The transition to daycare: Effect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on infant adjustment. In R. C. Ainslie (Ed.), *The Child and the Day Care Setting: Qualitative Variations and Development* (pp. 183-205). New York: Praeger.
- King, L. A., & King, D. W.(1997).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Development,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71-87.
- Myers, R. H.(2000). *Classical and Modern Regression with Application* (2nd ed). CA: Duxbury Press.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1). Child care and family predictors of preschool attachment and stability from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7*, 847-862.
- Spence, J. T., & Helmreich, R. L.(1983). Achievement-related motives and behaviors. In J. T. Spence (Ed.), *Achievement and achievement motives: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approaches* (pp. 7-74). San Francisco: W.H. Freeman and Company.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s, M.(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 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Journal, 29*, 663-676.

접 수 일 : 2010년 1월 26일

심사시작일 : 2010년 2월 2일

게재확정일 : 2010년 3월 11일